

## 哲人 스피노사 그의 生涯와 哲學(二)

-誕生 三百年 記念을 마지며-

金斗憲

二

스피노사의 思索的 意圖는 언제나 實踐的 標的을 잊지 안하였다. 그의 哲學은 個人的 心情을 平穩케하여 人生 最高 完全의 德福은 오즉 一切를 支配하는 永遠不變한 自然 卽 神에 對한 歸依에 차졌다.

神의 概念은 實로 스피노사 哲學의 核心이었다. 그것은 一切實在의 根柢를 어디서나 아니라, 知的 愛의 對象으로서 全意欲의 標的이 었든 것이다.

그러나 그의 神은 外在的 超越神이 아니다. 또한 基督教의 人格神도 아니다. 이러한 意味에서 그는 無神論者이었다. 그리하여 「맑스」學徒는 질겨口를 無神論者로 推戴한다. 그러나 반듯이 그러치도 안흔 것이다. 왜그더냐하면 스피노사는 果然 有神論者(Theist)가 아닌 無神論者(Atheist)이었으나, 無神論者(non-theist)가 아닌 汎神論者(Pautheist)이 었기 때문이다. 그는 다만 近世哲學의 開祖(Bruno)와 가튼 意味에서의 無神論者일 뿐이었다.

스피노사의 汎神論 思想은 벌써 否認할수업는 根本思想인 것이다. 그러면 스피노사의 汎神論이란 어떤 것인가.

그에 依하면 그 自身으로 存在하며, 그 自身에 依하여 생각된 것을 實體(subetang)라 한다. 그럼으로 實證은 絶對적으로 獨立自存한 것이요. 無限唯一한 것이다. 그러면 이 實體는 무엇이냐 하면 그것은 神이다. 이에 神은 萬物의 第一 原因 그러나 外在的 原因이 아니고, 內在的 原因 卽 自己原因(causasni)인 것이다. 마치 三角形의 本質은 三角形을 써나서 存在하지 않는 것과 가튼 萬物一切는 神의 外에 存在한 것이 아니라, 神의 本質內에서 存在한 것이다. 그럼으로 有限한 自然界는 所產의 自然(natura naturata)이라하면 神은 能產의 自然(natura naturaus)라 할 것이다. 스피노사는 이것을 神 卽 自然이라는 말로 表示하였다.